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원근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자폐아 특수학교 세운다

95년 완공목표, 초·중·고 과정, 치료실 등 갖춰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일, 교회가 감당해야

우리 교회는 금년도 교회설립4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들을 살펴보고 40주년 기념행사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사관을 완공하여 봉헌예배를 드리고 봉사관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미주 선교찬양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충현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6일에는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7월에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교회교육의 현황과 전망 및 그 발전을 모색하는 하는 기독교 교육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기념행사 가운데 특이한 것이 눈에 띈다. 그것은 95년에 완공될 자폐학교의 설립이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위

치한 충현기도원 내에 건축을 목표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설립하게 될 자폐학교는 교육훈련원 산하에 있는 조기교육원 과정(0~7세까지 유치원 과정)을 마친 자폐아들을 비롯하여 국민학교 취학 통지서를 받고도 자폐아들의 학습능력 부족과 심한 행동장애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만 방치되어 있는 많은 자폐아들에게 적합한 교육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다.

오는 200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자폐학교 설립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교사를 비롯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음악치료실, 생활 훈련실 등 각종 시설들을 갖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확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 개교에 따른 건축, 시설, 경비는 우리 교회가 부담하여 설립

할 예정이다.

1988년 현재로 전국에 90여개에 달하는 특수학교가 있지만 자폐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하여 국가나 개인이나 어느곳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육사업의 하나이다. 자폐학교는 큰 자금과 시설, 전문인력 등이 요구되는 힘이 많이 들고 기피하는 교육사업 중의 하나이며 아직까지는 국가나 사회나 독지가들 중 누구도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으며 '지역사회 봉사'라는 교회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했다.

온 교우 모두가 마음과 물질과 몸으로 큰 애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로목사 · 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4월 19일, 경북청도지역 선교100주년기념 부흥성회 인도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4월 19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 4월 20일, 전국장애인복지총연합회 사랑의 손잡기대회 축하
· 4월 20일, 청지기 훈련 특강
· 4월 21일, 한국운전기사 연합회 집회 설교
· 4월 22일, 안수집사 · 권사 후보교육 중장예배 설교

청지기훈련 일정 일부변경

제4연합교구 5월 3,4일로

지난 4월 5,6일부터 시작한 '93년도 청지기 훈련의 일정이 교회사정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4월 26,27일로 예정된 제4연합교구(3, 9, 10, 11, 12, 17교구)가 5월 3,4일로 연기된다. 한편 형편상 지정된 날짜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훈련은 예정대로 5월 3,4일에 하게된다. 이는 4월 27일(화) 제27대 장로장립식, 제8대 집사장립식, 제36대 권사취임식으로 모이기에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이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제3연합교구(7,8,13,14,21교구),
4월 19,20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난주부터 시작한 '93청지기 훈련은 금주에는 4월 19(월), 20(화)일 양일간 제3연합교구를 대상으로 열린다. 각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2시간의 강의와 친교시간, 기도시간으로 진행되는데 금주에 모일 제3연합교구는 7, 8, 13, 14, 21교구이다.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오후 6~7시 사이 저녁식사를, 또한 한시간 끝난 8시30분에는 간식을 제공한다. 이 청지기 훈련에는 제직은 물론 교사, 찬양대원, 교구 일꾼 등 모든 직분자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

올림픽 피켓 걸로 선발된 유정명 자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즐거운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할 터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지난 4월 11일 오후4시 선교관 305호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직위원회회를 열어 공개로 응모한 충현 피켓걸에 제 1교구 소속의 유정명(23세)자매를 선발했다.

▶ 피켓 걸 공개심사에서 뽐냈는데 소감은?

- 저는 응모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 서 하도 나가라고하고 집에서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응모를 했지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저 얼떨떨 할 뿐입니다.

▶ 현재하고 있는 일과 교회에서 소속 부서?

- 유치원(망원동 소재 사무엘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청년2부에 나가고 있어요. 지난 1989년 1월 1일부터 전 가족이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모두가 큰 만족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충현교회에서 영적으로

많이 자라나고 있어서 의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일까지 생겨서 더욱 감사가 됩니다.

▶ 이제는 공식적으로 충현올림픽 피켓 걸로 올림픽을 여는 선두에 서게 되었는데 각오랄까 그런 것은?

- 어쨌든 좀 미숙하지만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런 귀중한 일을 맡게 됐으니가 멋지게 해서 즐거운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올림픽 피켓 걸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올림픽에 집중하도록하고 올림픽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보게하며 올림픽의 열기를 짧은 시간에 모인 모두에게 전달시켜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한다. 168cm의 활출한 키와 아름다운 얼굴에 못지않게 고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지닌 자매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형>



예수 부활 하셨네

우리는 지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부활주일 보냈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교회는 기쁨과 감사의 곳곳에서 넘쳐나와 부활을 실감케 했다. 저녁 찬양예배는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로 드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했다.

충현강단



세레 요한의 죽음

(마 14:1-12)

“그때에 분봉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레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마 14:1,2)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세레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 세레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유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에게 경배하겠다고 거짓으로 동방 박사에게 얘기한 그 헤롯을 헤롯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아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안디바, 빌립, 아겔라요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헤롯 안디바라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헤롯이고 아들의 이름도 헤롯입니다. 그 중 헤롯 안디바는 바로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란 헤롯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영토를 세 등분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 하는 말은 삼분의 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일부를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도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별명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의 아내가 유명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악처 가운데 한 명인데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는 도중 그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동생의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그 당시 헤로디아는 벌써 살로메라고 하는 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마침내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도 헤로디아의 삼촌

입니다. 삼촌과 조카딸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세레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이유는 두 가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억지로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동생의 처인 빌립의 아내, 다시 말해서 조카와 결혼을 함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레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

2. 세레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

세레 요한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세레 요한의 인기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그의 인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까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그는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습니

다. 성도들은 물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뱀같이 자헤로우라고 했습니다. 순결만 가져오는 되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같이 자헤로워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그는 진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다윗을 설득한 점입니다.

3. 헤롯의 살인과 그 결과

헤롯이 세레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본문 6절에 보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식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러자 헤롯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살로메는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세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자기의 한 말의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레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 헤롯은 이두매인이라고 합니다. 이두매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족속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헤롯은 세레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갈릴리 통치자였습니다. 왜 신임을 잃었습니까? 그의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저 권력으로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진히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가 본처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인 아레타스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6년 아레타스는 군대를 거느리고 헤롯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아레타스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로 마침내 헤롯은 주후 39년에 로마당국의 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막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해야 합니다. 그 결단에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약속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잃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이란 한번 하면 반드시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울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재빨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셋째, 악처는 백년의 흉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또 추억을 보면 악처는 집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남자를 중심으로해서 만들어진 격언이지만 여자편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넷째, 세레 요한에게서부터 신앙 양심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이란 말은 한자로 ‘어질 양 자 [良] 에 마음 심 자 [心] 를 씁니다. 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선운 목사님은 “양심이 양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란 뜻의 컨science(consience)는 어원적으로 함께 안다, 즉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아는 의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화인받은 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도덕적인 감각이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양심은 안됩니다. 신앙양심, 즉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참양심입니다. 신앙양심은 위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신앙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세레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세레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앙양심에 따라 살 때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도 보상해주지만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주시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레 요한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울고 그 큰 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양심의 소유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요즘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 여자들이 사십대가 되면 소위 ‘워기’에 선 여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우울증과도 연관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울증이 사모들에게 많다는 통계다. 목사와 사모들 가운데 반 이상이 과거에 우울증에 걸렸거나 현재에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우울증에 있고 그것은 성공한 뒤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때 의사의 도움을 참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 망설여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정신과에 가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과에 가서 전문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특진을 받으시면 금방 해결된다.

글 / 신성중 목사



이 동 귀
(조기교육원 원장)

자폐아에 대한 이해

1990년 현재 특수학교는 전국에 10개교에 달하며 이 중에서 정신지체학교가 과반수를 넘고, 청각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그리고 정서장애학교 순이다.
자폐아들을 위한 학교는 대구에 1개교와 서울에 1개교를 합하여 전국에 2개교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폐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1. 자폐증이란 무엇인가?

10년전 까지만해도 대부분의 자폐아동들이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정에서 방치되었는데 최근 활발한 연구와 임상적인 실험의 진전에 따라서 자폐아동들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됨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책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중재(intervention)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자폐증은 중증행동적 결함 증세로써 보통 생후 직후나 아니면 생후 30개월 이내에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뇌손상 또는 뇌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나 정보를 적절하게 지각, 해석, 통합하는 뇌정보 센터의 불규칙적인 기능으로 인해 다른 장애에 비해 특별한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자폐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사람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등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결함을 보이며 특히 반향어(colalia)와 같은 언어특성을 나타냄으로서 극히 제한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전혀 감성표현이 없는 단조로운 억양과 서투른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대화로서 이끌 수 없다.

각 나라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신생아 1만명당 4-5명의 자폐아가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4배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본 조기교육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다도 자폐아동이 전체 아동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같이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지체나 다른 장애아 보다 자폐아의 출현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2. 자폐아를 위한 치료대책

오늘날 구미 선진국에서 자폐아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은 첫째, 개별화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교육 둘째, 메가비타민요법, 셋째 식이요법, 네번째 약물치료가 치료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

자폐아 치료방법으로써 교육적인 방법(educational approach)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자폐증의 일반적인 원인을 비정상적 두뇌기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뇌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폐아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이 정상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개별화 교육에 기초한 특수한 교과과정에 의해 치료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지능이 우수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과 과목에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들의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특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목별로 교과과정을 나누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기능과 기술영역별로 교과과정을 나눈다.

- 1) 사회적 / 행동적 기술영역
- 2) 언어기술영역
- 3) 일상생활기술영역
- 4) 학과 영역
- 5) 여가생활기술영역

- 6) 지역사회 기술영역
- 7) 직업기술 영역

3. 전국 자폐아동 실태

정부기관에 의한 전국 자폐아동의 실태가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1988년 7월부터 실시된 장애인 등록제로 인해 장애자의 실태가 파악되고 있으나, 장애 유형별로 분류 기록 되고 있지 않다. 더우기 자폐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자폐아에 대한 의학적인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으로 자폐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990년 현재 특수학교는 전국에 10개교에

달하며 이 중에서 정신지체학교가 과반수를 넘고, 청각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그리고 정서장애학교 순이다. 자폐아들을 위한 학교는 대구에 1개교와 서울에 1개교를 합하여 전국에 2개교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폐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충현교회 조기아동교육원은 1993년 3월 봉사관 이진으로 인하여 종래의 유치부와 함께 학령기 아동을 위한 초등부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부, 유치부, 0~3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오후 개별지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언어 치료실은 본 기관의 아동 및 외부아동을 치료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 초등부는 미술, 체육을 포함한 학과목과 함께 언어,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집단놀이와 주 3회의 식사지도 등으로 구성되며, 유치부는 언어 인지 사회성 대근육, 소근육, 신변처리와 주 2회의 식사지도등을 주 5일 실시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30분 단위로 배정된다.

현재 교사는 특수교사 14명, 유아교사 4명, 체육교사 2명, 미술교사 2명, 언어치료사 2명과 보조교사 1명등 총 25명의 교사가 팀을 이루어 각 아동의 상태(need)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자폐아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기아동교육원 수업 모습

모 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이 큰일이야' 이런 걱정을 어른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청소년 시절에는 지금의 청소년들과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항상 이전 세대와 염려와 관심 속에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항상 그래왔다면 별 걱정할 일이 없지않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양식으로 판단해 본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그 래프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자녀교육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는 더 이상 인격교육을 포기한 듯 합니다. 교회는 전문화되지 못한 전통의 틀 속에서 한 주간의 한 두시간을 붙잡고 힘줄어 하고 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소속없는 집단사니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기독교생들의 영성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약한 자 사단은 자신의 세계가 승리라도 한 듯이 패배를 부르는 듯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찾아 가기도 해야하고, 찾아 오기도 해야합니다. 교육구조, 교육혁신 운운 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당장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은 빵



♣ 칼럼 / 역삼동에서 ♣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장 봉 생

(목사, 2교구·고동부 지도)

에 굶주려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빵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만은.....' 하는 자신감은 더 이상 어두운 밤길에서 내 자식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 자녀들을 어두운 밤길의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최후의 울타리를 칠 때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울타리조차 칠 수 없는 삭막한 세상 그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해 공동책임 을 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게 한 책임을 어른들이 지세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나 똑똑히 해라. 나중에 너희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만들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되 어버린 결과를 가지고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더욱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 책임을 담당하십시오. 책임지고자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무엇을 행하고자 하십시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몇 사람이 모여서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자식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은 패란치입니다. 집을 떠쳐나온 자녀가, 찢든 마음을 끌고 힘겹게 살아가는 청소년이 언제든지 와서 몸과 마음을 함께 쉬며 사랑의 그분 우리 주님을 만나 뵈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신앙상담실은 단지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고, 막연히 낫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분께서 치료해주실 뿐 아니라 이전 보다 더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만남의 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열린 사회를 향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명분도 사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 기도원→교회 버스 운행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 출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교회 도착	오후 7시	오후 7시	오후 7시	오후 7시	금요일점후	
기도원 출발	오전 6시	오전 6시	오전 6시	오전 6시	오전 6시	새벽
기도원 도착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2,5,6시

토막소식

- ◆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남선우 장로)는 4월 말경에 각 파르탄합대회를 가지고 서로의 친교를 돈독히 하려고 한다.
-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어린이 주일에 성극을 하기로 하고 성극팀을 조직, 연습에 들어갔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에 관한 그림그리기대회를 유치부 1,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었다.
- ◆ 유치원(원감 정지자)는 지난 14일(수) 사슴반이 15일(목)에는 토끼반과 병아리반이 선정능으로 봄나들이를 갔다. 4월 한달동안 서울여대 아동학과 4학년 교육실습생이 나와 실습하고 있다.
-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오늘 성경이야기 대회를 갖는다. 또한 교사회에서는 심방결과보고가 있게 된다.
-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

- 신 전도사)는 3월 총동원전도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각 학급 100% 출석을 목표로 열심히 애쓰고 있다. 또한 지난주 초등 2부 소식지를 "살롬"3호를 내었다.
-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반 배가와 초청전도집회를 앞두고 각 학급 100% 출석반이 지난주에는 11개 학급에 이르렀다.
-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지난주 성경이야기 대회를 개최했다.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와 그림그리기대회에 많은 참석을 위해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오늘 안드레 전도운동 초청잔치를 '한 사람 한 명이상 전도합시다'란 표어를 걸고 실시한다.
-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오늘 성경퀴즈 대회를 창세기1~3장을 범위로 실시한다.
-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해 목사)는 이미 예선을 거쳐 선발한 팀으로 부활절 찬양대회 본선을 독창, 중창, 합창부분

- 으로 나누어 4월 18일 교육관 507호에서 개최한다.
-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토요일에 모이는 제자훈련 기초반을 모집한다. 또한 5월 4, 5일에는 충현기도원에서 '작은 수양회'로 모인다.
- ◆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윤삼중 강도사)는 4월 25일 예수사랑청년잔치를 개최하여 잃은 양 찾기와 태신자를 초청하여 "예수의 제자화" 운동에 힘쓸 예정이다.
-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지난주일 부활절 기념행사로 로마서 1~8장까지를 범위로 성경퀴즈 대회를 가졌다. 또한 4월 17일에는 안양에 있는 원로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로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청년부회지 '청년' 호의 복간호를 준비하고 있다.
- ◆ 장년1부(부장 정운석 장로, 지도 권성수 목사)는 오늘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요한, 마리아전도회원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주제는 '기쁨의 원천', 강사는

- 권성수 목사이다.
- ◆ 장년2부(부장 이하영 장로, 지도 신표근 목사)는 4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교육관 414호에서 유창부 목사(충현기도원 지도)를 강사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 ◆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집회시간에 어린이들을 유치원 교실에서 특별교사의 지도아래 보내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4월 중에 각 반별친교회를 갖고, 오늘을 '환절기 건강관리'란 제목의 특강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우기진 장로.
- ◆ 사랑부(부장 송환장 장로, 지도 임성한 목사)는 지난 4월 17일 특수기관견학을 청주재활원으로 다녀왔다.
- ◆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는 4월 25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평가하는 학습평가회를 가질 계획이다.

선교지 탐방기 : 홍콩편(3)

호랑이 기름과 우상 숭배

홍콩에서 유명한 곳 중의 하나가 호랑이 기름을 발명한 사람이 살던 집이다. 이곳은 홍콩을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곳이다. 그 곳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개인이 소유한 집으로서는 으리으리할 정도였다. 그는 호랑이 기름이라는 좋은 약을 발명하여 많은 사람을 고치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벌어들인 돈이 쓰인 곳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였다.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는 곳에 쓰였으며, 도박에 쓰였으며, 골동품 수집에 쓰였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그의 생전에 아내가 여러 명이 되었으며 그 슬하의 자식이 많아서 자기 아들이 앞으로 지나 가는데도 자기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 도처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았다.

홍콩의 우상 단지는 여기뿐이 아니었다.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향을 피워놓고 글씨를 써서 놓은 것이다. 우상단지가 극치를 이루는 곳은 왕따이신 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 왕따이신은 이 백여년 전 유명한 한의가 살던 곳에 지어졌는데 당시 그 한의는 신의 능력을 소유하여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한다. 그 사람은 약을 지어주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대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던 곳을 신성화 하여 그 곳에전을 짓고 그 곳에서 신을 섬기도록 하였다. 홍콩의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곳에 오는 사람은 남녀노소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향을 피워놓고 옆드려 절하며 소원을 빈다. 그 날도 그 곳을 찾아온 사람들로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곳을 찾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것인데 그 달란트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영광은 자신이 취하며 오히려 정욕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길인가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은 것 같았다. 그러나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전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찌 듣겠으며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겠는가? 다만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누구를 흠잡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도 그같은 일을 행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 김창인 원로목사님 : 4월 19일(월) - 21일(수) 경북 청도지역 선교100주년 부흥성회 인도
· 신성중 당회장 목사님 : 4월 19일(월) 목회자 세미나 특강
4월 20일(화) 전국장애인복지총연합회 사랑의 손잡기대회 축사, 청지기 훈련 특강,
4월 21일(수) 한국 운전기사 연합회 집회 설교,
4월 22일(목) 안수집사, 권사 후보교육 종강예배 설교
2.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주시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장애인들과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섬기게 하소서
4. 청지기 수련회에 힘써 참여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5. 미주 선교찬양대의 제반 준비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

3. 제4회 충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손신애 · 고등부 회원)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 유 정 명 자매 (제 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선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